

학교 문법에서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 기술의 일관성 문제

이 재 선* · 박 준 형**

차 례

1. 서론
2.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기술 현황
3. 문법서에 드러나는 기술 현황
4.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문법으로 일컬어지는 문법 교육의 현장에서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 기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기술의 전반적 현황을 검토하고, 일관성 있는 문법 현상 기술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연구 대상으로서의 문법 현상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하에 있는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는 정확하면서도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여 교육 주체들 간의 또한 교육 현장 전반에 걸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문법 현상은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이다. 이 두 개념이 보이는 비일관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국어교육학 및 국어국문학 전공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문법서의 기술 현황을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로 첫째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고, 둘째 교육과정 분류상의 음운의 변동 ‘교체’의 하위 위계로 ‘반모음화’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한다.

· **핵심어** : 학교 문법, 반모음, 반모음화, 모음 축약, 음절 축약

* 제1저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국어교육과, 학부생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계약교수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문법으로 일컬어지는 문법 교육의 현장에서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 기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기술의 전반적 현황을 검토하고, 일관성 있는 문법 현상 기술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학교 문법은 학문 문법과 차별화되는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는 문법의 체계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언어를 규범대로 바로 쓰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¹⁾이며, “학습자들이 모국어로서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를 규칙화·체계화함으로써, 모국어의 규칙 체계를 이해하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문법”(김정숙 2002:17)이다.

이러한 학교 문법은 통일성과 실용성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때 통일성은 학교 문법이 규범적인 성격을 띠어야 함을 뜻하고, 실용성은 학교 문법이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유용해야 함을 의미한다.(이관규 2023:21) 이러한 학교 문법의 필요조건 중에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성이다. 학문으로서의 문법에서는 여러 요인에 의해 동일한 문법 현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문법은 그 설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정확하면서도 일관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몇몇 문법 현상에 대해 교사, 그리고 연구자마다 다르게 설명하여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²⁾

본고에서는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라는 음운 변동 현상의 견해 차이를 다루고자 한다. 하나의 현상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하는 원인은 반모음을 음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학교문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0777>

2)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논의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문법과 학문 문법 간의 괴리를 좁히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음을 밝힌다. 신승용(2023), 비음화 설명의 문제점과, 비음화와 /ㄹ/ → /ㄴ/ 교체 의 탐구 순서 —2015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202, 국어국문학회, 63-84; 신승용(2023), 학교문법에서 품사 분류 기준 ‘가변어/불변어’의 문제점, 동서인문학 65,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5-121. 신승용(2017), 학교 문법에서 /ㅎ/ 기술의 문제점과 /ㅎ/의 음운론적 성격, 어문학 136, 한국어문학회, 63-81; 송창선(2016), 학교문법의 안은 문장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61, 국어교육학회, 141-160; 이정훈(2016), 학교문법의 ‘검문장’ 관련 내용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28,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421-456; 이정택(2013), 시제의 학교문법 기술 - 그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하여, 문법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347-365.

운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까지는 모음 축약에 대한 기술이 있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에서는 모음 축약에 대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전개할 내용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과서의 서술을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문법서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학교 문법에서 제시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기술상의 혼란은 학교 문법을 근거로 출제되어야 하는 국가 수준의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202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여 출제된 모의평가와 관련한 일화가 그것인데, 다소 뼈아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평가문항과 평가해설을 준거로 하여, 일선 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이 부화뇌동함에 따라, 학계, 교육계는 물론, 학습자 등 교육의 주체들까지도 혼란에 빠진 소사가 있었다. 학교 문법의 일관성 있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교육과정별 문법 교과서 기술 현황

문법 교과서는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명칭에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과정별 문법이 포함된 선택 과목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표 1〉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명 변화

교육과정	과목 명칭	
7차 교육과정	문법	
2007 개정 교육과정	문법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 II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2022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언어	

본고에서는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1종,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4종, 2011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6종,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5종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³⁾ 본

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①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 ② 2009 개정 교육과정⁴⁾
 - ㄱ. 박영목 외,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⁵⁾
 - ㄴ.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 ㄷ. 이남호 외, 『독서와 문법 I』, 비상교육.
 - ㄹ. 이삼형 외,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 ③ 2011 개정 교육과정
 - ㄱ. 박영목 외,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 ㄴ.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미래엔.
 - ㄷ. 이관규 외,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 ㄹ. 이삼형 외, 『독서와 문법』, 지학사.
 - ㅁ. 한철우 외, 『독서와 문법』, 교학사.
 - ㅂ. 이도영 외, 『독서와 문법』, 창비.
- ④ 2015 개정 교육과정
 - ㄱ. 민현식 외,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 ㄴ. 방민호 외, 『언어와 매체』, 미래엔.
 - ㄷ. 이관규 외, 『언어와 매체』, 비상교육.
 - ㄹ. 이삼형 외, 『언어와 매체』, 지학사.
 - ㅁ. 최형용 외, 『언어와 매체』, 창비.

위 교과서에서는 축약, 특히 모음 축약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아직 출판되기 이전이니 제외한다.

- 3) 여기서 교과서는 문법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7차 교육과정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지만,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공통 과정인 ‘고등학교 『국어(상)』, 『국어(하)』’만 적용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빨리 제시되어 선택 과목은 2007 개정이 아닌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편성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문법 선택 과목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다루지 않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2009년 12월 고시)과 2011 개정 교육과정(2011년 8월 고시)을 구분하여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 4)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에서 주로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 『독서와 문법 II』 교과서는 주로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표준 발음법 등 조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 『독서와 문법 I』 교과서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 5) 교과서 출판사명 지칭 시 ‘출판사명(대표 저자 외)’으로 표시한다.

2.1.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72쪽

(음운의 축약과 탈락 중 모음 축약)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축약의 하나이다. 이때 어느 하나의 모음은 반모음으로 바뀐다.

오+아서 → 와서

두+었다 → 뒀다

뜨+이다 → 띄다

되+어 → 돼

가지+어 → 가져

쓰+이어 → 쓰여, 씌어

7차 교과서는 음운 축약의 예시로 모음 축약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하나의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명시한다. 또한 제시한 예시들은 모두 이중모음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즉, ‘오+아서’가 ‘와서’가 되는 것은 음운의 축약이며 이때 어느 하나의 (단)모음인 ‘오’가 ‘반모음 ㅛ’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미끄러짐소리, 곧 활음으로 반모음 교체인 말소리의 변동이라고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

2.2.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2.2.1. 천재교육(박영목 외)

191쪽

(4) 음운의 축약(縮約)

음운의 축약이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① 거센소리되기: ‘ㅎ’과 ‘ㄱ, ㄷ, ㅂ, ㅈ’이 연결될 때, ‘ㅋ, ㅌ, ㅍ, ㅊ’과 같은 거센소리로 변하는 현상이다.

예: 만형[만형], 좁히대[조피대], 농고[노코]

② 음절 축약: ‘ㅣ’와 ‘ㅣ’가 만나서 ‘ㅑ’로 바뀌거나, ‘ㅓ, ㅕ’가 ‘ㅗ, ㅛ’ 앞에서 ‘ㅓ, ㅕ’로 바뀌는 현상이다.

예: 와(오아), 뒤(두어)

6) 이관규(2023:123)는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하지 않는데, 모음 축약에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미끄러짐소리, 곧 활음인 반모음 교체일 뿐이라고 보았다. 즉 반모음이 교체되는 것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라 말소리의 변동일 뿐이라는 말이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흔히 모음 축약이라고 표현한 음운 변동 현상을 ‘음절 축약’이라고 명시하였다. 음운의 축약 범주 안에 거센소리되기와 음절 축약 두 가지를 제시하였지만, 음운이 아닌 음절 축약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모음 축약과는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2. 미래엔(윤여탁 외)

59쪽

② 모음 축약

모음 ‘ㅣ’나 ‘ㅜ/ㅠ’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二重母音)을 이루는 것을 모음 축약이라 한다

그라+어 → [그레] 먹이+어 → [머져] 맞추+어 → [맞춰]⁷⁾

위의 예를 보면 모음 ‘ㅣ’나 ‘ㅠ’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9쪽

지식+

이중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축약인가?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축약을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중 모음을 ‘반모음+단모음’으로 분석하려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 모두 두 음운이므로 축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축약으로 보려면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모음 축약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음 ‘ㅣ’나 ‘ㅠ’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된다고 전통적인 입장을 기술하였다. 다만, 같은 쪽 심화 내용으로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축약이 아닌 교체(반모음화)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7) 해당 교과서에 따르면 [맞춰]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 기호인 점을 고려하면 오기라고 보인다. [만춰]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이다.

2.2.3. 비상교육(이남호 외)

248쪽

음운 변동의 종류

- 축약: 둘 이상의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되는 것.

해당 교과서에서는 음운의 변동의 종류 중 하나로 ‘축약’을 제시한 것 이외에 축약의 구체적인 변동 명칭과 예시는 명시하지 않았다.

2.2.4. 지학사(이삼형 외)

236쪽

5 축약⁸⁾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축약의 하나이다. 이때 어느 하나의 모음은 반모음으로 바뀐다.

- 오+아서 → 와서 · 두+었다 → 뒀다 · 가자+어 → 가져

해당 교과서에서는 7차 교과서 고등학교 『문법』의 서술을 그대로 가져왔다. 전통적인 관점을 그대로 기술했기에 모음 축약이라는 음운 변동을 인정하며,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다고 기술한 것은 음운 차원이 아닌 음성학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2011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2.3.1. 천재교육(박영목 외)

57쪽

2 음운의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음운의 축약이라고 한다.

8) 교사용 교과서에서는 ‘5 축약 →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제3의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자음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 한다.

예 좋고 → [조크], 많다 → [만타], 업히다 → [어피타], 젓히다 → [저치타]

· 모음 ‘ㅣ’나 ‘ㅗ/ㅜ’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것도 축약이라 한다. 이때 모음 ‘ㅣ’나 ‘ㅗ/ㅜ’는 반모음으로 바뀐다.

예 가리+어 → 가려, 두+었다 → 뒸다

▷ ‘가리 + 어 → 가려’와 같은 현상은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음절 축약에 해당한다. 이 현상은 ‘단모음+단모음’이 ‘반모음+단모음’이 되는 것이므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음운의 교체로 설명하기도 한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2009 개정 교과서에서의 진술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음절 축약이라고 명시했던 이전 교과서(동일 출판사)와 달리 모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하였다. 다만, 같은 쪽에 ‘가리 + 어 → 가려’와 같은 예시를 음절 축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술은 다르지만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같다고 보인다.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고 음운의 교체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점을 같이 제시하였다.

2.3.2. 미래언(윤여탁 외)

74쪽

밑줄 친 단어들 중 ‘빨강다’, ‘파랗다’는 [빨가타], [파라타]로 발음되어 ‘ㅎ’과 ‘ㄷ’이 ‘ㅌ’으로 발음된다. 또한, ‘봐’는 ‘보아’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것을 축약이라 하는데, ‘ㅎ’이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와 모음 축약 등이 있다.

● 모음 축약⁹⁾

모음들이 합쳐져 이중 모음을 이루는 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한다.

· 그리+어 → [그려] · 보+아 → [보]

위의 예를 보면 모음 ‘ㅣ’나 ‘ㅗ’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4쪽

[더 알아보기]

이중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축약인가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축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중 모음을 ‘반모음+단모음’의 두 음운으로 분석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 모두 두 음운이므로 축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축약으로 보려면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모음들이 합쳐져 이중 모음을 이루는 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전통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런데 같은 쪽 심화 내용으로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축약이 아닌 교체(반모음화)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동일 출판사 교과서에 있던 [지식+]에 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3. 비상교육(이관규 외)

66쪽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면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국어의 축약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나뉜다. 자음 축약은 ‘ㄱ, ㄷ, ㅂ, ㅈ’과 ‘ㅎ’이 연결될 때, ‘ㅋ, ㅌ, ㅍ, ㅊ’과 같은 거센소리로 변하는 현상으로, 거센 소리되기라고 한다. **모음 축약은 ‘ㅣ’와 ‘ㅣ’가 만나서 ‘ㅟ’로 바뀌거나, ‘ㅓ, ㅜ’가 ‘ㅓ, ㅜ’를 만나서 둘이 ‘ㅓ, ㅜ’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때 어느 하나의 모음은 반모음으로 바뀐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음 축약이나 모음 축약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 달리, 2011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현상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9) 교사용 교과서에서는 ‘● 모음 축약(=음절 축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3.4. 지학사(이삼형 외)

149쪽

④ 축약¹⁰⁾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축약의 하나이다. 이때 어느 하나의 모음은 반모음으로 바뀐다.

· 오--+아서 → 와서 · 두--+었다 → 뒀다 · 가지--+어 → 가져

해당 교과서의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동일 출판사 교과서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진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그 교과서 역시 7차 교과서 고등학교 『문법』의 서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5. 교학사(한철우 외)

76쪽

축약(縮約)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으로, 국어에서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나타난다. 자음 축약은 ‘종교조코’처럼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모음 축약은 ‘오--+아서[와서]’, ‘가지--+어[가져]’¹¹⁾처럼 앞뒤 형태소의 두 모음 중에서 한 모음이 반모음으로 변하여 한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모음 축약이라는 명칭을 제시하면서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로 교체의 관점으로 볼 여지나 보충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같은 관점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교사용 교과서에서는 ‘④ 축약 →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제3의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1) 해당 교과서에 따르면 [가져]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 기호인 점을 고려하면 오기라고 보인다. 경구개 자음 뒤에서 동일 위치인 반모음 /j/가 탈락하여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되어야 하므로 [가져]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이다.

2.3.6. 창비(이도영 외)

73쪽

축약의 예로는 거센소리되기가 있는데 이는 ‘ㅎ’의 앞뒤에 예사소리가 놓일 경우 둘이 합쳐져 거센소리가 되는 것이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축약에 대한 내용을 거센소리되기로만 제시하고 있으며, 모음 축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

2.4.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2.4.1. 천재교육(민현식 외)

112쪽

4. 축약¹²⁾

‘ㅎ’과 ‘ㄱ, ㄷ, ㅂ, ㅈ’이 만나 각각 [ㅋ, ㅌ, ㅍ, ㅊ]와 같은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예: 놓고[노코], 낱대[나: 타], 업히대[어피대], 앉히대[안치대]

2.4.2. 미래엔(방민호 외)

62쪽

4. 축약

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놓고[노코] 낱대[만타] 업히대[어피대] 짓히대[저치대]

12) 교사용 교과서에서는 ‘4. 축약: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라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현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4.3. 비상교육(이관규 외)

126쪽
4.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에는 자음 축약이 있다. 다음과 같이 자음 축약은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거센소리되기라고도 한다.
먹히다[머키다] 놓다[노타] 잡히다[자피다] 옮지[올치]

2.4.4. 지학사(이삼형 외)¹³⁾

60쪽

4. 축약¹⁴⁾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에는 자음 축약이 있다. 다음과 같이 자음 축약은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거센소리되기라고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고 → [조: 코]• 놓다 → [노타]• 쌓지 → [싸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히다 → [머키다]• 닫히다 → [다타다 → 다치다]• 잡히다 → [자피다]
---	---

2.4.5. 창비(최형용 외)

59쪽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가 대표적이다.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
예사소리 'ㅂ, ㄷ, ㄱ, ㅅ'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되기 [ㅍ, ㅌ, ㅋ,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예: 입학- 이 파[입학], 낳-+-다- 나 :타[낳], 많-+-고- 만 :코[많], 좋-+-지- 조 :치[좋]

13) 교사용 교과서에서는 해당 내용 옆에 ‘※ 모음 축약은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음운의 축약으로 다루었지만, 모음 축약을 음운 축약의 하위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보완되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4) 교사용 교과서에서는 ‘4 축약 →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제3의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5종 『언어와 매체』 교과서부터는 축약에는 거센소리되기만을 언급한다. 모음 축약에 대한 진술은 모두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교과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고등학교 『문법』
모음 축약을 언급하고 있는가?	○
음절이 줄어드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가?	○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
축약이 아닌 교체로 볼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는가?	X

〈표 3〉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I』 교과서*

	〈천〉	〈미〉	〈비〉	〈지〉
모음 축약을 언급하고 있는가?	X	○	X	○ ¹⁵⁾
음절이 줄어드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가?	○	X	X	○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X	○	X	○
축약이 아닌 교체로 볼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는가?	X	○	X	X

*〈천〉=천재교육, 〈미〉=미래엔, 〈비〉=비상교육, 〈지〉=지학사

〈표 4〉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

	〈천〉	〈미〉	〈비〉	〈지〉	〈교〉	〈창〉
모음 축약을 언급하고 있는가?	○	○	○	○	○	X
음절이 줄어드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가?	X	X	X	○	○	X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	○	○	○	○	X
축약이 아닌 교체로 볼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는가?	○	○	X	X	X	X

*〈천〉=천재교육, 〈미〉=미래엔, 〈비〉=비상교육, 〈지〉=지학사, 〈교〉=교학사, 〈창〉=창비

15) ‘모음 축약’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7차 교과서의 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7차 교과서와 같은 관점이라고 간주한다.

〈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교과서*

	〈천〉	〈미〉	〈비〉	〈지〉	〈창〉
모음 축약을 언급하고 있는가?	X	X	X	X	X
음절이 줄어드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가?	X	X	X	X	X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X	X	X	X	X
축약이 아닌 교체로 볼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는가?	X	X	X	X	X

*〈천〉=천재교육, 〈미〉=미래엔, 〈비〉=비상교육, 〈지〉=지학사, 〈창〉=창비

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문항

<p>11. 다음의 ㉔에 해당하는 것을 ㉑~㉓ 중에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모음의 변동】</p> <p>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㉔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p> <p>【모음 변동의 사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㉑ 기+어 → [기어]</p> <p>㉒ 살피+어 → [살피]</p> <p>㉓ 배우+어 → [배워]</p> <p>㉔ 나서+어 → [나서]</p> </div> </div> <p>① ㉑, ㉒ ② ㉑, ㉓ ③ ㉒, ㉓ ④ ㉒, ㉓ ⑤ ㉓, ㉔</p>	<p>11. <보기>의 ㉔에 들어갈 발로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p>선생님: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오’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p> <p>학생: 네, ㉔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p> </div> <p>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어]</p> <p>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p> <p>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잠가]</p> <p>④ 어간 ‘걸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걸더서]</p> <p>⑤ 어간 ‘키우-’와 어미 ‘-아라’가 결합해 [키워라]</p>
<p>〈그림 1〉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11번 문항 (2014년 11월 시행)</p>	<p>〈그림 2〉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2020년 9월 시행)</p>

〈그림 1〉과 〈그림 2〉 두 문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며 생기는, 그리고 교사는 이를 대비시키기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 중 하나이다. 〈그림 1〉의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정답: ③)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것으로 『독서와 문법 I』 교과서를 근거로 출제된 것이다. 여기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전통적인 관점으로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된다는 설명으로 ‘모음 축약’을 출제하였다. 그런데 6년 뒤 평가원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항(정답: ④)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반모음화’를 출제하였다.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것으로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근거로 출제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모음 축약’이라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제시했던 과거 교과서들과 달리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는 모두 해당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학사(이삼형 외)(2019:60) 교사용 교과서에서는 모음 축약이 7차에서 다루었던 음운 축약의 하위 범주로서의 모음 축약을 수정·보완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모음 축약이 음운 변동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견해들이 모의평가 문항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7차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들은 모음 축약에 대한 기술은 상이한 면이 있었지만, 이중 모음이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모든 교과서가 음운의 체계를 설명하면서 언급하는 공통적인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것을 학교 문법의 공통 관점으로 수렴하고, 모든 교과서는 ‘반모음화’를 음운 변동의 하위 범주인 교체의 구체적 변동 양상으로 제시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음운 변동 설명이 될 것이고, 이를 학생들이 탐구함으로써 사고력 또한 확장될 것이라 생각된다.

3. 문법서에 드러나는 기술 현황

교과서 집필 및 국가 단위 평가 문항 제작에 있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문법서라고 할 수 있다. 시중에 있는 여러 저자의 문법서들을 보면 이 역시 하나의 현상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명한 일이지만, 오히려 문법서에서 학교 문법에서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학교 문법에서의 관점을 잘못 설명하여¹⁶⁾ 학교 현장에

16) 예를 들어,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269쪽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이, -게, -도록, -듯(이), -(으)르수록’ 정도만을 부사형 어미로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과거에 종속적 연결어미로 다루어진 모든 어미들을 부사형 어미로 다루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실제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를 부사 파생 접미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지만 부사형 어미처럼 사용되어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것

서는 혼란이 나타나기도 한다.

문법적 전해가 다양할 수 있음은 인정하지만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정확하고도 어느 정도의 일관된 분석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와 관련된 문법서의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문법의 일관된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문법서 중 전공자들과 교사들에게 널리 읽히고 학교 문법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4종을 선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법서는 다음과 같다.

- ①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② 이문규(2015),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③ 이관규(2023), 『(2022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문법론』, 역락.
- ④ 나찬연(2024), 『(국어 교사를 위한) 학교 문법. 1, 언어와 국어음운 형태 통사의미』, 경진출판.

3.1.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88쪽

전통적으로는 두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도 음운의 축약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 문법이나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런 입장을 취한다.¹⁷⁾ 여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모두 축약에 포함된다.

(51) 가. 기어서 → [겨: 서], 두어라 → [뒤: 래]
나. 되어 → [돼:], 하여 → [해:]

그러나 음운의 변동 양상을 기준으로 하면 (51가)는 반모음화가 적용되었을 뿐 두 음운이 제3의 음운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지 않는 한 (51가)를 음운의 축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1나) 역시 단순히 축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되어[돼:]’는 두 개의 단모음 ‘니+리’가 ‘반모음+단모음’의 구조로 된 ‘내’로 바뀌었으므로 음운의 수에 변동이 없으며 … .

으로 설명하는 것이 학교 문법 관점에서 적절하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이’는 부사형 어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부사형 어미라고 문법서에서 제시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17) 현재 학교 문법의 관점도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모음 축약의 진술 자체가 없기에 전통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

구본관 외(2015:88)는 모음 축약은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없고, 반모음화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역시 ‘단모음+단모음’의 구조에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어 ‘반모음+단모음’의 구조가 되고 이중 모음이 되므로 음운의 수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고 있다.

3.2. 이문규(2015),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182-183쪽

이 음운 변동은 어간 끝 모음 ‘ㄱ, ㄷ, ㄴ’와 어미 첫 모음 ‘ㅏ, ㅑ’가 이어 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음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변동은 음운론적 단위에 따라 ‘축약’으로도 볼 수 있고 ‘대치’로도 볼 수도 있다. 두 음절이 하나로 줄었다고 보면 축약이 되고, 단순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것을 중시하면 반모음화라는 대치 현상이 되는 것이다. 즉, ‘ㄱ(ㄱ)+ㅏ(ㅏ) → ㄱ(ㅑ)’(음절 축약)는 ‘ㄱ(ㄱ) → w / + __ ㅏ(ㅏ)’(반모음화)와 같고, ‘ㅏ+ㅑ → ㅑ’는 ‘ㅏ → ㅏ / __ ㅑ’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는 **음운 차원의 변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축약’이 아닌 ‘대치’로 분류한다.**

184쪽

역대 학교 문법서에서는 반모음화를 ‘대치’가 아닌 ‘축약’으로 분류해 왔는데, 이것은 이 현상에 의해 음절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이 현상을 “두 형태소가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일”로 풀이한 것이 그 보기이다. **그러나 음운 변동이 음운 차원의 소리 바뀔 현상을 가리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모음화는 ‘대치’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학교 문법에서 반모음화는 성격이 다른 ‘되+어>돼’류를 위의 반모음화 자료와 함께 ‘축약’으로 다루기도 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모음 축약’의 보기로 제시한 자료이다.

오+아서 → 와서, 두+었다 → 뒀다, 프+이다 → 피다, 되+어 → 돼 가지+어 → 가져, 쓰+이어 → 쓰여, 씹어

2007년 이후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들 중에서도 일부는 반모음화를 ‘축약’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현상을 ‘음운의 축약’의 하위 현상으로 다루면서도 음절 축약이라고 불러 그 성격을 구별하거나, ‘축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더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한 것도 있다.

이문규(2015:182-184) 역시 모음 축약은 음절 축약의 차원이며, 이는 음운 변동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반모음화라는 대치 현상으로 보아야 함을 논한다. 또한 교과서에서도 축약의 입장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3.3. 이관규(2023), 『(2022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문법론』

93쪽

그런데 최근 들어 EBS 교재를 비롯하여 여러 개론서에서 축약이 아닌 교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 이 문제는 결국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중 모음을 만드는 음성적 요소로만 볼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23-124쪽

한편 (25ㄴ)¹⁸⁾의 ‘가리어 → 가려’는 단모음 ‘ㅣ’와 ‘ㅓ’가 이중 모음(복합음소) ‘ㅓ’로 축약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축약이 아니라 교체로 보는 입장도 있다.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었다고 하는 주장인데, 이것은 반모음을 음운으로 보는 입장을 반영한다. ‘두었다 → 뒀다’에서는 모음 ‘ㅜ’가 반모음 [w]로 교체되었다는 주장이다.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하지 않는 본서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미끄러짐소리, 곧 활음인 반모음 교체일 뿐이다. 즉 음운의 변동이 아니라 말소리의 변동일 뿐이라는 말이다. ‘아니오’가 [아니요]로 소리 나는 것은 흔히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음운 첨가가 아닌 단순한 말소리로서 반모음 [j] 첨가일 뿐이다. 실제로 [아니오] 발음이나 [아니요] 발음이나 의미 차이는 없다.

그런데 (25ㄷ)의 ‘되어 → 돼’에서는 무엇이 무엇으로 교체되었다고 말해야 할지 설명이 곤란하다. ‘ㅓ’와 ‘ㅓ’는 본래 각각 단모음인데, 이중 모음 ‘ㅓ’에서는 무엇이 단모음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ㅓ’ 이중 모음은 분명히 반모음 [w]와 단모음 ‘ㅓ’로 분석될 텐데, 그렇다면 ‘ㅓ’가 반모음 [w]로 교체됐고 ‘ㅓ’가 ‘ㅓ’로 교체되었다고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축약은 의미 변화의 음운 변동 차원이라기보다는 말소리의 변동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즉 ‘ㅓ+ㅓ’가 ‘ㅓ’로 축약되었다고 보면 교육적 유용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123-124쪽

‘가리어 → 가려’, ‘되어 → 돼’로 축약되는 것은 음절 축약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다. 두 개 음절이 하나 음절로 바뀌었으니, 분명히 축약은 축약이다. 반모음을 음운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단지 음운 축약이 아니라 음절 축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것이다.

18) (25) 축약ㄴ. 가리어 → 가려[가려], 두었다 → 뒀다[뒀다] ㄷ. 되어 → 돼[돼]

이관규(2023:123-124)는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모음 축약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교체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단모음이 활음(미끄러짐 소리)인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일 뿐 음운 차원에서의 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음성학적으로만 반모음을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반모음화라는 음운 변동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되어 → 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문을 던진다. 그리고 ‘니+니’를 ‘내’로 축약되었다고 보는 것이 교육적 유용성이 더 크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이관규(2023:92)가 위와 같이 ‘니+니’의 ‘내’로의 축약이 교육적 유용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중 모음을 하나의 복합음소(compound phoneme)¹⁹⁾로 보게 되면 한국인의 직관에 부합하여 교수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두 개가 한 개로 줄어들었다는 표면적인 현상에 집중한 것이다. 이중 모음의 한 구성요소인 반모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직관적이지 않다고 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유용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유용할 수 있으며, 앞서 말했듯 학교 문법은 통일성에 주목하여 일관성, 정확성도 고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만약 이중 모음이 하나의 음소라는 견해를 수용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음운 변동 중 축약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모음 축약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음운 변동을 배우기 전 먼저 접하게 되는 ‘음운 체계’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어려움이 생긴다. 모음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반모음은 음성학적 요소로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반모음이 음성학적 요소라는 것은 학생들이 배우기에 어려워 생각해야 하는가? 오히려 더 복잡하고 교수·학습 면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소로 설정할 때 유용성이 더 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다른 음운 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그 예로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천재교육(민현식 외)(2019:111) 교과서는 구개음화를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인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구개음(센입천장소

19) 복합음소인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소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트루베츠키의 『음운론의 원리』(1939)의 진술이 뒷받침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리)이 아니었던 ‘ㄷ, ㅌ’이 구개음인 [ʒ], [ʧ]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여기서 모음 ‘ㅣ’는 음운이고 반모음 ‘ㅣ’는 음운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붙여부체’는 반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설명하면 음운이 아닌 음성학적 요소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동화 현상으로 설명해야 된다. 혹은 위의 구개음화 정의에서 “모음인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모음 ‘ㅣ’나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되어 → 돼’처럼 ‘ㅁ+ㅣ’를 ‘내’를 반모음화로 공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공시적이 아닌 통시적인 음운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학교 문법에서의 음운 변동은 공시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모음화’를 공시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사례는 ‘모음 축약’, 즉 음절의 축약이라는 통시적인 음운 변화로 처리하면 일관성을 지키면서 학교 문법에서의 설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하고 고등학생들이 심화 탐구활동으로 이를 분류함으로써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4. 나찬연(2024) 『(국어 교사를 위한) 학교 문법. 1, 언어와 국어 · 음운 · 형태 · 통사 · 의미』

159쪽

(나) 모음의 축약

두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앞 형태소의 끝 모음인 /ㄱ, ㄷ, ㅣ/와 뒤 형태소의 첫 모음인 /ㅏ, ㅑ/가 축약되어서 이중 모음으로 바뀐다.

첫째,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간의 끝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축약될 수 있다.

(61) ㄱ. 기어서[겨서], 띄어[뜨여], 쓰이어[쓰여], 트이어[트여]

ㄴ. 보아서[봐: 서], 오아서[와: 서], 쏘았다[췌: 다]²⁰⁾

ㄷ. 두어서[뒤: 서], 주었다[췌: 다]

(62) ㄱ. 기어서[kiasə]→겨서[kjesə]

ㄴ. 보아서[[poasə]→봐서[pwasə]

ㄷ. 두어서[tuasə]→뒀서[twasə]

159쪽

(61)에서 (ㄱ)의 ‘겨서’는 어간의 끝소리인 /ㄱ/가 반모음 /j/로 바뀐 뒤에 어미의 첫소리인 /ㄴ/와 축약되어서 /ㄱ/로 바뀌었다. (ㄴ)의 ‘와서’는 어간의 끝소리인 /ㄴ/가 반모음인 /w/로 바뀐 뒤에 어미의 첫소리인 /ㅏ/와 축약되어서 /ㅏ/로 바뀌었다. (ㄷ)의 ‘뒀다’는 어간의 끝소리인 /ㄷ/가 반모음인 /w/로 바뀐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ㄴ/와 축약되어서 /ㄴ/로 바뀌었다.²¹⁾

나찬연(2024:159)은 (61)과 (62)의 예시들을 설명함에 있어 모음 축약과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 두 가지를 밝히며 해당 저자는 이중 모음을 단일한 음운으로 보고 모음 축약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7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와 문법서 4종에 있는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와 관련된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7차 교육과정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모음 축약에 대한 기술은 상이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음 축약에 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서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전국 단위 평가 문항(그림2)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시에 7차부터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서 변함이 없던 설명은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이 결합을 바탕으로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으로서 이중 모음을 두 개의 음운으로 취급하는 것

20) ㄴ. 쓰았대쥬: 대와 ㄷ. 주었대쥬: 대에서 평과열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경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각 [쥬: 때], [쥬: 때]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21) 나찬연(2024:159)은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판단하면 (61)의 예는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축약’된 현상으로 처리되고, 이중 모음 자체를 (62)처럼 ‘반모음+단모음’의 결합체로 보면, 단모음인 /ㅣ/, /ㅏ/, /ㅑ/가 각각 반모음인 /j/와 /w/로 ‘교체’된 현상으로 처리한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해당 저자는 이중 모음을 단일한 음운으로 보고 (61)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축약으로 처리하였다.

이 학교 현장에서 정확하고 일관되고 유용한 설명이 될 것이다. 반모음화가 아닌 모음 축약을 실용적이고 유용하게 설명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반모음이 음운이 아니며, 음성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더 혼란스럽고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4종의 문법서도 서로 상이한 기술을 보이지만 반모음화를 하나의 음운 변동 현상으로 도입하는 데 반문을 가질 이유는 많지 않다고 보인다. 오히려 나찬연(2024:159)이 제시한 ‘(62) ㄱ. 기어서[kiasə]→겨서[kjəsə]’와 같은 예시들은 음운론이 발음 차원의 학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IPA(국제 음성 기호) /i/가 /j/로 바뀐 것이다. 음운론적 차원에서는 해당 예시를 교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다. 또한 이관규(2023:123-124)에서 반문한 ‘되어 → 돼’는 음운 변동이 아니라 모음 축약이라는 음절의 축약으로 설명하면 된다. 이는 공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통시적 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²²⁾

한편 ‘사이’가 ‘새’가 되거나, ‘보이다’가 ‘뵈다’가 되는 예시들이 있다. 혹자는 ‘ㅏ+ㅣ’가 ‘ㅑ’가 된 것, ‘ㅓ+ㅣ’가 ‘ㅕ’가 된 것은 축약되어 단모음이 된 것인데, 이는 이중 모음이 된 것과 양상이 다르기에 반모음화로 설명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새’는 ‘사이’의 준말, ‘뵈다’는 ‘보이다’의 준말일 뿐이다. 모음 축약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음절의 차원이고, 공식적인 음운 변동이 아니라 통시적인 음운 변화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 사전을 기준으로 찾아볼 때도 ‘사이’와 ‘새’, ‘보이다’와 ‘뵈다’ 각각의 표제어가 모두 등재되어 있다. 이는 통시적인 음운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 일관된 처리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처리하고 공식적인 음운 변동인 반모음화를 도입하고, 통시적인 음운 변화를 구분한다면 학교 문법에 있어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확대되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학교 문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2) 음운 변동과 음운 변화의 공식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따로 있지만, 학교 문법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것을 다루는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시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공식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관규(2004:159-162)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민현식(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서울: 천재교육.
- 박영목(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서울: 천재교육.
- 박영목(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서울: 천재교육.
- 방민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서울: 미래엔.
- 윤여탁(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서울: 미래엔.
- 윤여탁(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서울: 미래엔.
- 이관규(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서울: 비상교육.
- 이관규(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서울: 비상교육.
- 이남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서울: 비상교육.
- 이도영(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경기도: 창비.
- 이삼형(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서울: 지학사.
- 이삼형(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서울: 지학사.
- 이삼형(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서울: 지학사.
- 최형용(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경기도: 창비.
- 한철우(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서울: 교학사.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김정숙(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론」 토론회,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제18차 추계 학술대회 발표집』.
- 나찬연(2024), 『(국어 교육을 위한) 학교 문법.1, 언어와 국어·음운·형태·통사·의미』. 경진.
- 송창선(2016), 「학교문법의 안은 문장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61집, 국어교육학회, 141~160쪽.
- 신승용(2017), 「학교 문법에서 /ㅎ/ 기술의 문제점과 /ㅎ/의 음운론적 성격」, 『어문학』 제136집, 한국어문학회, 63~81쪽.
- 신승용(2023), 「비음화 설명의 문제점과, 비음화와 ‘/ㄹ/ → /ㄴ/ 교체’의 탐구 순서 -2015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국문학』

제202집, 국어국문학회, 63~84쪽.

신승용(2023), 「학교문법에서 품사 분류 기준 ‘가변어/불변어’의 문제점」,
『동서인문학』 65집,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5~121쪽.

이관규(2023), 『(2022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문법론』, 역락.

이문규(2004), 「학교 문법 속의 음운론」, 『국어교육연구』 제36집, 국어교육학회, 149~170쪽.

이문규(2015),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이정택(2013), 「시제의 학교문법 기술 - 그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하여」,
『문법교육』 제19집, 한국문법교육학회, 347~365쪽.

이정훈(2016), 「학교문법의 ‘겹문장’ 관련 내용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제28집,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421~456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학교문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0777>

〈Abstract〉

Consistency Issues with Vowel-coalescences and Semi-vowelization Statements in School Grammar

Lee, Jae-sun · Park, Jun-h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inconsistency in the description of ‘Vowel-coalescences’ and ‘Semi-vowelization’ within the domain of grammatical education, commonly referred to as “school grammar.”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se descriptions, this research seeks to underscore the necessity of consistent and systematic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phenomena.

Grammatical phenomena, as objects of study,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searcher.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school grammar, situated within a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it is imperative to provide precise and consistent explanations to minimize confusion among educators, learners, and across the broader educational landscape.

This study focuses on the grammatical phenomena of ‘Vowel-coalescence’ and ‘Semi-vowelization’. To illustrate the inconsistencies associated with these concepts, the study analyzes the descriptions of these phenomena in textbooks from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urthermore, it examines the treatment of these phenomena in grammar reference books commonly used at the leve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linguistics.

In summary, the findings suggest two key points: first, semivowels should be recognized as phonemes; and second, ‘Semi-vowelization’ should be classified as a subcategory of the phonological change of

‘substitu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iculum.

· **Key Words** : School grammar, Semi-vowels, Semi-vowelization,
Vowel-coalescence, Syllable reduction

이재선

주 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302호

전자우편: jaesun224@knu.ac.kr

박준형

주 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302호

전자우편: jh08@knu.ac.kr

논문 투고일: 2025년 01월 29일

심사 완료일: 2025년 02월 1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2월 20일